

광산구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청년·청소년·외국인주민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교육

광산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전환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 적극적인 참여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는 현장 중심 교육에 더해 청년, 청소년, 외국인 주민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17개소(12개 동 등에서 19회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이해, 참여예산 제안서 작성 방법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민이 어렵게 느끼는 제안서 작성은 실습으로 이해도를 높여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현장 접수 창구’도 함께 운영해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수렴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광산구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동기 기자

북구 ‘자립준비청년 마음 치유 멘토링’

1:1 매칭...12월까지 진로·취업 등 멘토링 지원

북구가 자립준비청년의 지역사회 지지체계 강화를 위해 ‘자립준비청년 마음 치유 멘토링’ 활동에 본격 나선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자들의 마음을 슬기롭게 치유해주기 위해 구성된 전문 멘토들이 이날 오후 1시 30분 행복아울렛센터 강당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멘티 대화’ 자리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고립감 극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북구의 ‘2024년 자립

준비청년 전문 멘토 마음 토크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멘토(10명)·멘티(10명)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멘토 위촉장 수여 ▲사업 안내 ▲멘토·멘티 매칭 및 소통 등이 진행된다.

아동 심리·정서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전문 멘토는 간담회에서 매칭된 멘티들과 12월까지 1:1 분기별 정기 만남과 수시 만남을 통해 화합, 진로, 취업, 일상생활 등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자립준비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동구 경로당 어르신 화재 예방 활동 총력

10월까지 소방안전교육·시설 점검·소방용품 보급 지속

동구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시설 점검·소방용품 보급 등 선제적 화재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경로당 주 이용객인 어르신들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는 물론 대피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 안전 의식과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관내 123개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동부소방서 119 재난대응단과 연계해 경로당 회장 정례회의 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 2종(분말·투척용)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시설 안전 관리 매니저를 활용한 경로당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소방기구 일체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봄철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어르신에 대상으로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순천 풍력발전단지 조성 “조례 개악 규탄”

반대위 “시의회, 주민동의 빙자 풍력발전 조례 개악 시도”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5일 오전 10시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주민 동의를 빙자한 조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Km 이내를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순천시에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2K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대위는 “수년간 반대 투쟁을 통해 개정하고 지켜온 조례를 한 지역을 위한 누더기 조례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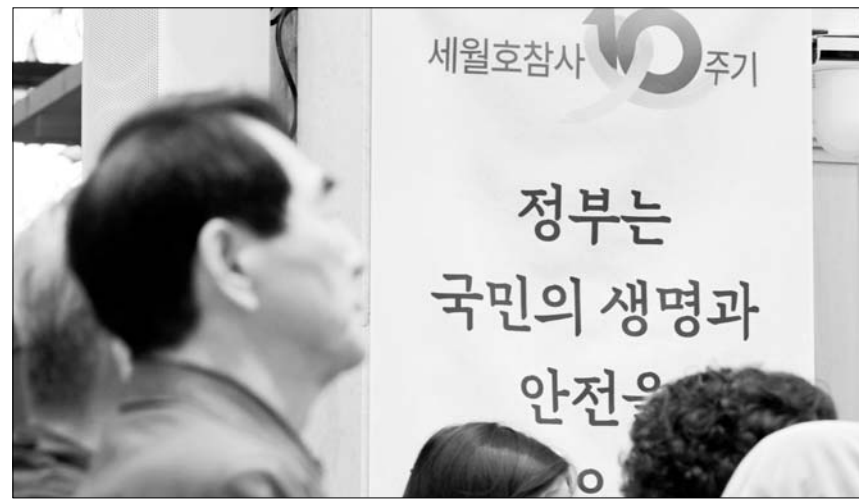
특히, 반대위는 “송광풍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허가시점, 풍향계 측기 여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문제점, 건설과정의 정부 지원금 문제” 등을 제기했다.

반대위는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안전 상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조례 개악시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순천=조준의 기자

“근본 쇄신 마련 전까지 잊어선 안돼”

천주교주교회의, 목포서 세월호 10주기 미사 봉헌 “국민생명·안전 최우선 국정 운영 다시 한번 촉구”



15일 오후 목포시 산정동성당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같들어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까지 비슷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면서 천주교회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를 향해 뼈아픈 자성과 환골탈태를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세월호 참사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정을 운영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 수업 성장 지원”...광주교육청 ‘수업으로의 초대’

다양성 품은 수업활성화 정책...“수업 실천 전문가 양성”

광주시 교육청은 다양성을 품은 ‘수업으로의 초대’ 제도를 운용해 교사들의 수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수업으로의 초대’는 지난해 수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요구됐던 다양한 수업 참관 기회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처음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교 교사들이 다양성을 품은 수업을 연구·공개하고

이를 동료교사가 참관·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함께 수업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 교육청은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를 비롯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통합수업 등 연간 16회의 수업을 계획해 월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수업 공개는 지난해 수업실천사례 발표대회 입상교사, 수석교사, 수업·평가 혁신 현장지원단 등이다.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신청을 통해

자유롭게 수업 참관이 가능하다.

수업 참관 뒤에는 해당 수업을 통해 각자 자신의 수업 고민을 찾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토의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참관 교사는 수업 내용과 함께 다양한 수업 협의 운영 방식을 경험하고 이를 학교로 돌아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다양한 수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수업 실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사·학생 모두가 성장하는 수업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나서...실태점검

집중호우·태풍 대비 안전관리·무더위쉼터 현장점검 등

광주시가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대비에 나섰다.

광주시는 최근(11~12일) 시청 17층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5개 자치구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자연재난 대처능력 향상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도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했던 대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여름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속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안전관리 ▲방재시설 정비 및 시험가동 ▲피해 수습체계 구축 ▲재난 대비 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또, 날이 심화하는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1594개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광주시는 무더위 쉼터의 ▲냉방기 작동 ▲담뱃자 지정 ▲국민재난안전

포털 위치 정보 일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5일 신안군 씨원리조트에서 자치구, 유관기관 등 풍수해 재난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자연재난 대처방안과 현장사례 공유 등을 통해 협업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담당자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정책의 변화, 국가 홍수예·경보체계를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김도기 기자

미식관광 대표주자 ‘양동통맥축제’ 19일 개막

내달 4일까지 매주 금·토 양동전통시장 일원

1000원 맥주·미니 버스킹 등 프로그램 다채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양동전통시장 고유의 맛과 멋을 즐기는 ‘아주 특별한 미식관광형 축제’ 제2회 양동통맥축제가 19일 개막한다. 광주시 서구는 오는 19일부터 5월4일까지 3주에 걸쳐 매주 금·토요일 양동전통시장 구6번로와 대평교 일대에서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양동통맥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개막식은 19일 오후 5시 주무대에서 지역예술팀의 공연으로 시작되며 K관광마켓 미래비전 선포식과 양동통맥축제 메뉴 퍼레이드 및 시식이 이어진다.

축제 기간에 구6번로와 시장 내부 일부는 ‘이팅존(Eating Zone)’으로 꾸며져 식음테이블 200개가 설치되고 매일 ‘2024년의 천원맥주’와 함께 양동 대표음식인 통닭과 닭꼬치, 닭강정, 훗타, 건어물, 떡볶이 등 60여종의 음식을 판매한다.

서구는 이번 축제를 위해 전문세프들과 협업을 통해 메뉴를 개발하고, 식재료를 시장 내에서 자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시장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주무대에서는 매주 금·토요일 오후 4~5시 양동전통시장 관련 주제 로 퀴즈쇼가 진행, 축제가 시작되는 19일과 마지막 날인 5월4일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자들의 댓글로 음식을 조리하는 ‘AI(양동이로봇)



랜선 키친’이 펼쳐진다.

또한 축제 기간 양동이 노래방, ‘통맥 DJ EDM’ 파티, 통맥버스킹, 온라인 디지털커머스 ‘집으로 ON 양동’, 보물찾기 이벤트 등 축제 방문객과 시장상인들이 함께 하는 코너도 진행된다.

/조선주 기자

전남도,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확대

전남도가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인 ‘클린존’을 기존 23곳에서 73곳으로 확대했다.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고 도민의 교통안전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 광고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자 지난해 클린존 23곳을 지정, 불법 광고물 5만6154건을 정비했다. 클린존 내 정당현수막이 11% 감소하고 관련 민원도 크게 줄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클린존 50곳을 추가 지정했다. 주요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 안전구역 등 불법 유통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시·군별 3곳 이상을 클린존으로 선정·운영할 방침이다. 지정현황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클린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군 담당부서, 옥외광고협회, 수거보상원 등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광고물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전남도,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 온 힘

전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순천, 여수에서 실시하는 등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전남에서 선정된 청년 활동가, 시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의 전반적 이해 및 지원 정책 이론 교육과 우수 사회적기업인 ㈜쿠키아, ㈜달다우,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등 현장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전남의 사회적경제를 이끌 우수 청년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시켜 지방소멸을 막고, 나아가 잠재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2억 6천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3명, 올해 4월 기준 20명의 청년 활동가를 양성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예비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의 기자